

국방부 “김정은은 군 인사 대거 대동...무기거래 예의주시”

전용열차 타고 러시아 도착... 오늘 중 푸틴과 정상회담 가능성 내각 부총리·경공업 부장 수행단 포함 노동자 송출 논의 우려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김정은이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특히 군부 인사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수행단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됐다. 박태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도 방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태성과 김명식은 북한이 무기 거래로 쟁길 수 있는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외에도 또 다른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동방경제포럼(EFP)이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과 연계된 일정이 있지 않겠느냐”며 “나머지 사안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이른바 이날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수행단에 박훈 내각 부총리와 한광상 경공업부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박훈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된다”며 “한광상 경공업부장의 경우 노동자 송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교역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 당국자는 2019년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 날짜를 12~13일로 예상했다.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북핵 해결 중국에 역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정각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으며,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 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또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재차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 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 추진 합의를 환기하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리고 다녔던 경제에 활력이 들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제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국방장관 사표 수리후 오늘 개각할 듯...“안보공백 최소화”

野 탄핵 추진 방어적 차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해방대 채포 상봉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고리로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가운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개각 시점은 13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보 공백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

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셈이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통령 인사권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여러 안팎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형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거론된다. /연합뉴스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직위해제 요건도 대폭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정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솔러지 건조기 등

- 1997 테린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오병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태린인드스트리(주) |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